열만 높아도 "타미플루 달라"

신종플루 대유행, 광주·전남 병원 진료 환자 '북새통'

주차장까지 진료소 운영 … 전국서 3명 추가 사망

신종플루 확진자가 지난 주 초부터 급증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거점병원들은 진료를 받거나 확진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지역 6개 거점병원 의료진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27일 시작됐지만 접종대상이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된 탓인지 큰 혼란 없이 대체로 차분하게 접종이 이뤄졌다.

27일 신종플루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신종플루를 의심해 진찰을 받은 환자 수는 지난 20일에는 42명에 불과했으나 26일에는 304명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또 담양사랑병원도 신종플루 감염을 우려한 학생·주민·학부모 등이 지난 22일부터 하루평균 100명 이상 방문하면서 병원이 극심한 혼잡을 보였다. 평소 신종플루를 의심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하루 평균 1~2명에 불과했으나 전국적으로 발병 확산세를 보이자 단순 환자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각 거점병원 접수처와 내과, 응급실 등은 밀려드는 환자로 수일 째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처방기준이 완화된 신종플루 치료제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확진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공포와 15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확진검사비 등으로 인해 가벼운 증상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치료제를 요구하는 환자 마저 있어 병원 곳곳에서 승강이가 일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 타미플루 처방인원은 20일 247명, 21일 267명, 22일 369명, 23일 513명으로 3일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어 주말인 24일 270명, 25일 135명을 기록했다.

앞으로 보건당국이 확진 검사 없이도 타미플루 등 치료제를 투약하도록 한 만큼 처방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동구 한 거점병원에서는 한 학부모가 "수험생 아들이 있는데 타미플루를 줄 수 없느냐"고 요구해 의료진과 승강이를 벌인 끝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으며, 다중 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원생 1명이 신종플루 증세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감염 우려가 높다며 투약 처방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 병원 의사는 "단순 감기 환자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미플루 처방을 요구해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며 "투약지침이 바뀐 뒤로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처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선대병원에서는 27일 오후 신종플루 진료실과 응급실, 야간 당직실 등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60명의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됐다. 이 병원은 다음주까지 1천200명 전 직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담양사랑병원 강상진 원장은 "병원을 찾는 주민들이 워낙 많아 병원 앞 주차장에 별도의 검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전국에서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20대 여성을 포함한 3명이 추가 사망함으로써 지금까지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복지시설 봉사자 발길 '뚝'

신종플루 급속 확산 … "오지 말라" 사절도

중·고생들 봉사활동 점수 못 채워 '발 동동'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격히 준데다 일부 아동·노인시설은 외지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봉사자 받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보육·아동·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대부분 비정기적인 자원봉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자원봉사마저 자칫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북구 동림동 아동복지시설인 애육원은 정기적인 자원봉사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 봉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신규 자원봉사는 거절하고 있다. 애육원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언제 집단감염에 노출될 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가급적 외지인의 방문을 사절하고 있으며, 안면이 있는 분들만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가 줄면서 각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반드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시설에는 오히려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겨 큰 고초를 겪고 있다. 광산구 덕림동에 위치한 양로원 동일동산 관계자는 "다른 곳은 자원봉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데 이곳은 반드시 봉사가 필요한 데 사람이 없다"며 "신종플루로 인해 직원들이 쉬는 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종플루 확산 정도가 심화될 경우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광주지역 일부 중·고교생들은 복지시설들이 자원봉사자를 받지 않는 바람에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연간 중학생 12시간, 고등학생 20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봉사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내신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에선 학생들이 자원봉사 등 외부활동으로 신종플루 감염 우려도 있는 만큼 올해에 한해 봉사활동 점수제를 일시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자원봉사 참가 단체를 찾지 못해 상담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신종플루 등을 감안해 올해에는 외부 봉사활동 점수제를 일시 중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우찬

환기구 밑 추락 2명 부상

27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모 생명빌딩 지하 1층에서 모 이동통신 소속 직원 채모(42)씨와 전모(32)씨가 넓이 5m, 깊이 12m 환기구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채씨와 전씨가 중상을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통사고 손해 배상액 체중 무거우면 더 줘야

법원 "간병비 포함"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입었다면 간병비 등 손해배상액도 더 많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27일 교통사고로 가슴 이하가 마비된 송모(58)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증액된 간병비 등을 반영해 1심보다 6천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신장 179㎝, 체중 110㎏으로 체구가 비대한 점에 비춰볼 때 생존기간 동안 '1일 10시간, 성인남자 1인'의 간병이 필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씨는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보험금보다 6천만원이 많은 4억 3천2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송씨는 지난 2006년 2월 광양시 옥룡면의 편도 1차로를 걷던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에 치어 가슴 이하가 완전 마비되는 중증장애를 겪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조선대 취업박람회 … 내 직장은 어디?

27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지역 및 전국의 2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대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여대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상담 창구를 찾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시의원 비방 5명에 "30만~400만원 배상하라"

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기수 판사는 27일 광주시의회 손재홍(49)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전모(26)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씨 등은 1인당 30만~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전씨 등은 자신들이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던 내용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5월 수차례에 걸쳐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사회복지관 사업 관련 비리, 성추문 등 의혹을 들춰내며 시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손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낙농조합장 선거 무효

광주고법 "무자격자 6명 투표 당락 좌우"

지난해 치러진 전남 낙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무자격자 투표 참여' 등을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7일 전남낙농조합 선모(48)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강모(54) 조합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업이나 낙농포기로 사실상 자격을 잃은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강씨와 선씨의 득표 차가 2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선거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관상 '착유우(젖을 짜고 있는 젖소)를 5마리 이상 보유하거나 낙농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돼있음에도 무자격자 6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씨는 지난해 9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유효투표 516표 중 257표를 얻어 259표를 얻은 강 당선자에게 2표차로 낙선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휴대전화료 꾸지람 듣고 집에 방화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27일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S(14)군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S군은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2층짜리 주택 1층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종이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질러 370만원 상당(경찰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경찰조사 결과 S군은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가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꾸지람을 하자 홧김에 불을 냈는데, 경찰에서 "아버지가 계속 추궁하자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때늦은 후회.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